

한국전력 육상팀 심종섭, 도쿄 간다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대회서 2시간11분24초 기준기록 통과하며 '우승' '마지막까지 최선 올림픽 좋은 성적 낼 것'

지난해 전남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한국전력 육상팀 심종섭이 도쿄행을 확정지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심종섭은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2시간 11분 24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과 함께 도쿄올림픽 기준기록인 2시간 11분 30초를 6초 가량 앞당기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특히, 나주출신으로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심종섭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3월 서울국제마라톤 이후 한번도 공식 대회에 못나가는 등 이번 올림픽 출전에 적신호가 켜졌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였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전 개인기록인 2시간 12분 57초를 1분 33초나 앞당기며 도쿄행 티켓을 확정했다. 심종섭은 "훈련 때는 2시간 9분, 10

분대 페이스로 뛰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재무 감독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더욱 간절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무 회장은 "자랑스러운 전남의 대표선수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종섭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 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전남도체육회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올림픽 마라톤은 일본 삿포로에서 8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김민정기자



전남도청 양연수, 시즌 첫 금빛 스트로크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 여자 일반부 우승

양연수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금빛 스트로크를 날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17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양연수가 여일반부 결승전에서 대전체육회의 이지현을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여자 국가대표선수 모두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양연수는 16강에서 서효주(대구시청)를 3:1, 8강에서 박다연(경북연맹)을 3:0으로 각각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인천시체육회의 엄화영 또한 3: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양연수는 이지현에 3:1로 이기며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또한 박은옥 2번 시드에 배정받은 안은찬(대구시청)을 16강에서 3:2로 이기는 이번도 연출했다. 특히, 이번 대회 우승은 전남스포츠과학센터(센터장 김태완)의 현장지원

이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부터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밀착지원 선수로 부상회복과 컨디션 관리 관리를 받고 있는 양연수는 이번에도 대회 현장에서 스포츠과학센터의 현장 지원을 통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다. 전남도청 김영재 감독은 "올 시즌 첫 대회부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전감각 유지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지원을 통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무 회장은 "양연수 선수의 우승과 박은옥 선수의 8강 진출을 축하한다"며 "이번 대회 선수들의 땀방울과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현장지원이 서로 힘을 모아 최고의 성적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전남스포츠과학센터가 도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이승훈·김보름 출전...종목별 빙속 선수권대회 9일 개막

SK텔레콤 제55회 전국 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2020~2021시즌 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파견 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다 이번이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2020시즌부터 현재까지의 스피드스케이팅 국내랭킹을 바탕으로 종목별 추천 기준을 만족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대회 종목으로는 남녀 500m,

1000m, 1500m, 5000m(여자 3000m), 10000m(여자 5000m) 경기가 진행된다. 장거리 간판 이승훈(서울일반)을 비롯해 김민석(성남시청), 차민규(의정부시청), 김보름(강원도청), 김현영(성남시청), 김민선(의정부시

청)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해 본 대회 참가 선수, 지도자 및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연맹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다. 뉴시스

'득점 1위' 전북 일류첸코, K리그1 7라운드 MVP



수원 삼성 원정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득점 랭킹 단독 1위를 질주한 전북 현대 외국인 골잡이 일류첸코가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일류첸코를 7라운드 MVP로 뽑았다고 밝혔다. 일류첸코는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전북의 3-1 완승을 이끌었다. 그는 1-0으로 앞선 후반 28분 이용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35분에는 정확한 패스로 바로우의 썩기골을 도왔다. 이날 1골 1도움을 올린 일류첸코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총 5골로 득점 선두를 달렸다. 뉴시스

일류첸코의 활약에 전북은 개막 7경기 무패(5승2무)로 1위(승점 17)를 유지했다. 전북과 수원의 경기가 7라운드 베스트매치에 선정됐고, 전북은 베스트팀에 뽑혔다. 베스트11 공격수에는 일류첸코와 함께 라스(수원FC)가 자리했다. 미드필더에는 바로우, 최영준(이상 전북), 윤빛가람(울산), 엄지성(광주)이, 수비수에는 최철순, 최보경(이상 전북), 조유민(수원FC), 김수범(강원)이 포함됐다. 골키퍼는 최영은(대구)이다. K리그2 5라운드 MVP는 서울이랜드FC의 고재현이 뽑혔다. 고재현은 지난 4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치른 부천FC와의 경기에서 강력한 중거리 골로 서울이랜드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서울이랜드와 부천의 경기는 5라운드 베스트매치에 선정됐고, 서울이랜드는 베스트팀에 올랐다. 뉴시스

마스터스 앞둔 김시우 "출전으로도 영광, 꿈꾸는 느낌"

77년 역사 자랑...PGA 투어 중 명품 대회로 꼽혀 4년 연속 참가 최고 성적 공동 21위...임성재도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앞둔 김시우가 "출전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김시우는 6일(한국시간) PGA 투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스터스는 PGA 투어 중에서도 명품 대회로 꼽힌다. 올해 대회 출전권이 없던 김시우는 지난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으로 어렵게 5년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시우는 "마스터스 자체가 가장 큰 대회이고, 골프 대회 중 최고로 인정하는 대회이기에, 정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면서 "좋은 선수들과 좋은 코스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참가한 김시우의 최고 성적은 2019년의 공동 21위다. 김시우는 "첫해에는 너무 긴장해서 플레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후에는 조금 경력이 생기자 보니 다른 메이저대회들보다 코스와 잘 맞아 성적이 좋았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첫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어렸을 때부터 TV로만 보다가 선수들 치는 것을 옆에서 봤다. 모든 홀이 유명하고, 코스 컨디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김시우는 "거의 흡입 하나 없었기에 처음 가봤을 때 되게 인상 깊었다. 정말 골 좋았다"고 소개했다. 올해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임성재와 김시우 두 명이다. 김시우는 임성재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정용진 SSG 구단주, 자신 이름 딴 '용진이형 상' 1호 최정·최주환

SSG 랜더스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수여했다. 경기에서 활약한 선수인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상인데, 이름이 '용진이형 상'이다. 1호 수상자는 개막전에서 홈런 두 방울을 터뜨린 최정과 최주환이다. 정 구단주는 이들에게 상장과 한우를 각각 선물했다. 정 구단주가 최정과 최주환에게 전달한 상장에는 "위 선수는 2021년 개막전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SSG 랜더스 창단 첫 승리를 견인하였기에 '용진이형 상'을 수여하고 매우 매우 자랑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최주환은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에 정 구단주가 전달한 '용진이형 상' 상장과 한우를 공개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용진 구단주님 깜짝 서프



정용진 SSG 랜더스 구단주가 최정과 최주환에게 선물한 '용진이형 상'. (사진 = 최주환 인스타그램 캡처) 라이즈 '용진이형 상',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야구 잘 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지난 1월말 야구단 인수를 공식화한 정 구단주는 야구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의 구단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며 '용진이 형'이라 불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